



유학 경험 살려 포장업 발전에 일조할터

새로운 이론 확립의 필요성

김득수 / 영국 Demonfort 대학 박사과정

한 분야에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하는 포장 업계의 산증인인 김득수씨가 이번 포장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득수 기술사는 포장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시절 남들과 달리 포장에 대해 빨리 인식하고 해태 포장팀에서 조금씩 자리매김을 하고 있던 중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85년 영국 Watford 대학 포장학과에서 1년간 포장학 연수를 받고 95년도 해태의 디자인회사인 D&C에서 디자인 업무를 보았다.

그러던 중 포장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95년 영국의 Demonfort 대학에 유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득수 기술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장을 기술적인 요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포장은 기술적인 요소에 디자인과 마케팅이 접목된 복합적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라며 설명했다.

덧붙여 "현대는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시각적 효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품판매



자들은 이를 이용해 제품이 눈에 확 띄일 수 있는, 그 제품만의 특징 및 개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둬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장디자인의 연구와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라며 그 중요성을 부연설명 했다.

포장기술편람과 포장기술용어집,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공부해 이번 포장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득수 기술사는 겸손함의 자세로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이론정립에 힘쓸 생각이다.

김득수 기술사는 불혹이 넘는 나이에도 연구에 전념해 포장업계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포장을 심리학적으로 접근시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내년 3월쯤에는 박사과정도 끝날 것이라 예상을 한다.

영국에서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국내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실무를 바탕으로 포장 기술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서 포장업계의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